

책임기의 절약과 낭비

서지문

고려대 교수·영문학

현대인은 문화, 예술을 무료로 향유하는 데 지극히 익숙해져 있다.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위대한 명곡이 그냥 흘러나오고, 좌석표가 10만원씩 하는 음악회도 며칠 후에 TV에서 녹화방영을 해준다. 불후의 명작은 값싼 문고본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그 읽는 수고도 아끼는 사람에게는 영화화가 되어 조금도 지적인 노력없이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. 이것은 물론 문명의 발전이 가져다 준 큰 축복이지만, 사람들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의 가치를 소홀히 생각하기 쉽다. 어떤 작가, 화가, 작곡가가 얼마나 무수한 좌절을 거치며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 예술품을 만들어 내었는가는 그 작품들을 감상하는데 하나의 양념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.

그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예술품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. 창작미술품을 관객이 돈을 내고 감상하는 일은 거의 없고 판매로 수익을 보려는 화랑들이 마련한 전시회에서 항상 공짜로 감상을 한다. 나도 무료전시회를 즐겨 이용하지만 이 관행으로 인한 예술의 상품화가 우려스럽다.

지난 봄 유럽한국학회에 참석을 했다가 귀국길에 잠시 빠리에 들 수 있었는데 마침 풍피두센터에서 「앙리 마티스 1903-1917」이라는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. 아침 10시반쯤 이 전시회를 보러갔는데 우리나라 명절때 귀성기차표예매인파가 무색할 정도로 굽이굽이 장사진을 이루며 관람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. 12시에 개장이라는데 언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었는지, 그저 놀라기만 했다.

그 줄에 선 사람들이 다 입장을 하려면 몇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내가 난감해했더니 그 앞에서 기념품가게를 하는 사람이 전시회는 10시까지 여는데 오후 5시 이후에는 줄이 좀 줄어들니까 그때 와보라고 귀뜸을 해주었다. 그래서 6시가 지나서 갔더니 건물 밖에는 줄이 없었고 건물 안 1층 홀에 뱀모양으로 줄이 서 있었다. 그 줄에서 1시간 15분을 기다려서 겨우 표를 사서 입장을 했다. 그것이 시작한 지 한달을 넘은 전시회의 평일의 모습이었다.

그 이튿날은 '티시언의 시대'와 '아메노피스파라오' 두 개의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그랑 팔레를 갔는데, 역시 또 줄이 한없이 구비구비 이어져 있는 것이었다. 그래서 정말 빠리가 문화의 도시라는 것이 허명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.

위대한 예술과 만나기 위한 긴 기다림이야말로 예술의 가치를 충분히 감식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준비라고 생각된다. 예술이 모든 사람에게 값싸게 공급된다는 것은 인류의 가장 소중한 꿈의 실현이다. 그러나 예술을 언제라도, 쉽게 만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술에서 얻는 감흥과 깨달음도 감소된 바가 적지 않은 듯하다. 물론 만남의 경위보다는 만나는 자체가 더 중요하지만 쉽게 만날 것에 대해서는 엄숙한 대면을 하지 않게 되고, 그래서 그 만남의 의미도 놓치게 되기가 쉽다.

요새 대학입시의 방법이 바뀌니까 세계명작을 고등학생용으로 다이제스트한 책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. 고등학생들이 세계명작에 대해 너무 알 기회가 없으니까 다이제스트한 책이라도 안읽는 것 보다는 읽는 것이 몇배 나을 것이다. 후에 대학에 가서, 또는 어른이 되어서, 다이제스트로 입문한 책을 정식으로 읽게 된다면 다이제스트판은 커다란 선물이요 보배라 할 것이다. 그러나 다이제스트를 읽었으니 원본을 읽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다이제스트판은 유해서적이 아닐 수 없다.

현대인은 거의 모든 수고를 돈으로 대신할 수 있고 필요한 물자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. 그러나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만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와 학문과 예술이다. 인생이란 주어진 시간을 써버리면 끝나는 것이고, 그러기에 될수록 시간을 절약하여 꼭 필요한 값진 일에 써야 한다. 전적으로 절약만 하면서 보낸 인생은 결국 낭비한 인생이 아니겠는가.

뉴스 2 출판물 유통센터 준공·외

표지인물 4 **이제야 옳게 밝혀지는 우리 옛땅이름들**
「한국고지명사전」 펴낸 전용신 교수

연중기획 ① 6 **항일 애국계몽 거대한 영웅담의 실현** — 이현희
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⑩ - 신채호의 「을지문덕」

연중기획 ② 8 **전적문화재 가득한 영남사람의 고향**
책의해에 찾아가본 책의 명소 ③ - 옥산서원

특별기고 10 **“과학기술계 원로들 저자로 나설 때다”** — 김학수
책의 해와 과학 저술

서평 12 **바이스게르버 「모국어와 정신형성」** — 김성대
순세관 「도시주거형성의 역사」 — 이규목

13 **보드웰 외 「영화예술」** — 김지석
스즈끼 「스즈끼 연극론」 — 고승길

14 **오성찬 「어두운 시대의 초상화」** — 김영화
고원정 「사랑하는 나의 연사들」 — 문홍술

15 **박노해 「참된 시작」** — 김형수

특집 ① 16 **서점가에도 출사표 던진 무협지**

17 **한여름 무더위 식히는 추리소설의 세계**

18 **책으로, 혹은 책과 함께 떠나는 여름여행**

이 책 그 사람 20 **「선시총서」** 펴낸 조영암스님
「쉽게 보는 활인심방」 펴낸 이철원씨

21 **「언제나 너의 이름은 따뜻하다」** 낸 황청원씨
「동송동 그 여자」 펴낸 김동선씨

특집 ② 22 **목수가 되고픈 이의 들꽃 사랑하는 마음** — 방영웅

23 **피서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시절** — 윤청광

24 **영원히 떠나지 않을 풍요로운 인생의 향기** — 나해철

25 **미처 발견치 못한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** — 정정호

세계의 책 26 **미국인들의 휴가철 읽을거리** — 배병삼

28 **이 달의 청소년 도서**

30 **화제의 신간**

32 **신간안내**

40 **200자 안내**

48 **프리즘/재미있는 책이야기/정기구독안내**

표지사진/김홍진

알림

「출판저널」 다음호(제133호)는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8월20일자로 발행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